

한라시론



손성민 제주테크노파크 산업기획팀장

기업하기 좋은 제주 만들기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조직적인 경제 단위'이다. 기업을 통해 부가가치가 발생하며, 그 가치는 재화와 일 자리를 창출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모든 경제의 핵심으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낸다. 제주지역 기업은 2021년 9만6000개 정도로 2012년 4만9000개 대비 약 2배 정도 증가했지만 증가된 수에 비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비례하지 못 한 아쉬움이 있다. 지역 산업 구조는 총생산 중 숙박·음식점업, 도매·소매업 등 서비스

업 비중이 2021년 76.9%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반면 제조업은 3.9%, 정보통신업 1.0%에 불과하며 이 또한 감소 추세이다. 2023년 제주 경제지표는 광공업 생산지수와 서비스업 생산지수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감소했다. 소매 판매액지수는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하였다. 생산과 소비지표가 모두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인 건 코로나 19가 발발한 지난 2020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고용률 또한 하락했으며 청년층 중심으로 인구 순유출 현상이 나타났다. '좋은 기업'이란 훌륭한 인재를 확보하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제품이나 상품을 생산하여 경제에 순기능을 하는 기업이다. 기업이 성장하려면 혁신 활동과 우수 인재 확보가 가장 큰 당면 과제이다. 제주가 이 두 가지 요소 모두 다른 지역보

다 많이 부족하다. 거점 대학은 하나밖에 없어 혁신의 가장 큰 주체인 고급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인프라 또한 부족하여 전문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서비스를 받기에 어려움이 있다. 최근 국가 연구개발 정책 기조가 예산을 축소하고 국가 핵심사업 위주로 집중하여 기업들이 앞으로 혁신 활동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기업이 혁신 활동을 꺼리고 주저할 수도 있다. 기업 경쟁력 저하는 기업의 지역 유입을 떨어뜨리고 그에 따른 일자리 부족과 젊은 층 인구감소로 이어진다. 이런 면에서 제주에는 분명,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닌 듯하다.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기업 육성 및 유치와 연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산·학·연 전체

가 하나의 클러스터로 작용하여 상호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또, 기업 육성과 유치에 알맞은 전문 연구기관의 유치에도 애써야 한다. 연구개발능력이 부족한 지역 기업들의 역량 배양을 위해서는 우수 국책 연구기관 유치 등을 통한 전문 연구개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아울러, 체계적 전문인력양성과 공급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제주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제주를 떠나는 기업 대부분이 인력공급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론했다. 도내 대학교육 시스템 또한 실제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 높은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은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서로가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때이다.

사설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허송세월 우려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환경보전비용을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은 좌고우면(左顧右盼)만 하다가 허송세월하는 양상이다. 제주도관광협회가 지난달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자 곧바로 송창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더불어 도의회를 중심으로 도민합의를 넘어서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기에 관광업계의 지속적인 불만 등을 해소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하지만 오영훈 도지사는 숨고르기를 선택했다. 오 지사는 그제 열린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과 관련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오 지사는 "외국인 관광객이 일정 정도 증가했지만 내국

인 관광객이 1300만명 이하로 줄어들자 각종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역경제 둔화가 급격하게 발생했고, 자영업자 위기가 바로 포착됐다. 건설경기 악화로 이어지고,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됐다"는 상황설명으로 보류의지를 밝혔다. 결국 10여 년 동안 논의만 진행되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은 또다시 답보상태를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환경보전 등 도민합의도 중요하지만,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지역경제 문제를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처지여서 더욱 그렇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은 분명 맞다. 그렇지만 경제상황 등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 늦춘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 경제와 환경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연착륙을 시도해야 할 때이다. 오 지사의 결단을 기대한다.

편집국 25시

중복 질문



이대운 정치부 기자 ity9456@halla.com

올해 첫 도정질문이 이뤄지고 있다. 도정질문에 나서는 의원들은 저마다 전문분야 및 각종 지역 현안 내용을 정리해 오영훈 제주지사의 입장을 묻고 있다. 이번 도정질문은 4·10총선이 끝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열린다. 총선기간 대부분의 도의원들은 총선에 출마한 소속당 후보자들을 도우며 주민들과 만났고, 또 이 과정에서 지역현안에 대한 민원을 청취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아직 '따끈따끈'한 지역 민원과 현안들이 지역구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도원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새로운 지역 민원과 현안에 대해 제주도의 수장인 오영훈 제주지사의 견해와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총선 직후에 주어지면서 이번 도정질문은 오 지사가 얼마나 폭넓게 제주지역 곳곳 현안과 민원을 인지하고 있는 지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도정질문 2일차에 접어들었으나 앞서 말한 따끈따끈한 새로운 지역 현안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 제주지역의 대형 현안인 행정체제개편, 환경보전분담금, 해양쓰레기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은 당연히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에 대한 의원들간 질문이 겹치고 있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처럼 중복되는 질문에 오영훈 제주지사는 기존에 밝혔던 입장을 새롭게 각색하며 답변하는데 진땀을 빼기도 했다. 다음 도정질문에서는 중복질문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의회 내부의 자체 검토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in

제주맥주, 일본·중국과 맛으로 승부한다

한·중·일 맥주축제 개최

한·중·일 맥주축제 개최 ○...화산 암반수를 기반으로 하는 제주산 맥주가 일본과 중국산 맥주와 겨루는 '맥주 삼국지'에 출사표를 던지며 그 결과에 관심이 증폭. 제주도가 19~2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야외주차장에서 글로벌 맥주와의 파트너십과 삼국의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주 최초 '한·중·일 맥주축제'를 개최하는 가운데, 3개국의 37개 맥주브랜드가 한자리에 모이며 자존심을 건 한판승부가 예상된다. 주최 측은 "맥주 게임은 눈을 가려 삼국의 맥주 샘플러를 맛보고 브랜드를 맞추는 블라인드 테스트, 빨대로 맥주 빨리 마시기, 맥주컵에 탁구공 넣기(비어퐁), 맥주병 고리 걸기(링토스)로 구성한다"며 애주가들의 구미를 자극. 백금티자

농가 돕기 꽃 선물 프로젝트

농가 돕기 꽃 선물 프로젝트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물가 상승 등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지원하는 '감사의 꽃 선물하기' 프로젝트를 진행. 1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서귀포시 각 부서와 읍면동 등 공직자를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수요 조사를 한 뒤 한국화원협회 제주지회에 수요량을 주문해 기관별로 배달되는 꽃바구니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 예정. 서귀포시는 "심심일반의 마음으로 공직자들이 꽃 사주기 운동에 동참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위축된 화훼 소비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들에게 선물할 꽃바구니도 구입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 전선희기자

제주대 글로벌대학 실패, 제대로 준비했나

제주대학교가 교육부의 글로벌대학 지정에서 또 실패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예비지정 평가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교육부와 글로벌대학위원회는 지난 16일 2024년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총 20개(33개교)를 발표했다. 제주대는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사업은 지역과 연계한 대학의 혁신전략을 평가, 30개 대학에 2026년까지 5년간 총 1000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인 제주대로서는 결코 놓칠 수 없는 기회다. 김일환 총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글로벌대학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허언에 그치고 말았다. 제주대가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나름 노력했지만 대학 구성원들과 지역사회의 역량을 제대로

결집하여 도전했는지 의문이다. 지난 달 제주대 인문대학 학생회 등에서는 "사업 준비가 재학생들과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는 반발이 터져 나오는 등 불협화음도 있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여러모로 아쉬움이 크다. 제주대는 내년에 재도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두 번의 실패에서 원인을 찾고 교훈을 얻는, 치밀한 점검과 혹독한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실패는 반복된다. 게다가 내년과 내후년은 선정 대학도 5개로 줄어들 예정이어서 문은 더 좁아진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 선정을 장담할 수 없다. 대학의 명운이 달려있다는 각오로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는 예견된 일이고, 다른 대학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제주양씨 영일 (前 한국농촌지도자 제주도연합회 여성부회장·향년 67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뵈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4년 4월 18일 남 편 현장열 아 들 현은택 머느리 최미연 딸 현명은 사 위 김민석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지(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등기는 되어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소유권 이전 분쟁시 소송상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투데이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곡성을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율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발효기(곰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완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펠릿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 010-3119-3820, 010-2696-9876

묘지매매 연동 2488-439 묘지매매(문종토지) 618㎡ 조성완료 3.3㎡ 당 55만원 ☎ 010-3699-0254

황칠나무는 제주가 원산지이며 최고의 약용식물임 황칠나무의 효능 ★혈액순환 촉진 ★간기능 개선 ★생육 촉진 ★항암·항산화 효과 황칠발효액의 효능 ★소화 흡수를 상승 ★고기 특유의 냄새 중화 ★요리시 원액 : 물을 2:8의 비율로 희석하여 약6시간 이상 침적할경우 육질이 부드러워 고기 특유의 냄새를 중화시킴 ★음용시 원액 : 물 혹은 커피, 요구르트 등을 2:8의 비율로 희석하여 수시로 드시면 좋음 황칠재배농장 제주시 보배길 32-16 濟大수의학과를 70대 수의사(김상홍) 개발중 문의전화 010-5169-4520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척추 허리 골반 중풍마비(실어증), 어거, 영치, 다리통증, O.X다리, 키크기, 성장 교정 1회 체험으로 대만족 Snpe, 활력도비술, 정통고려할법전승계승자 대한할법연맹 010-7121-8275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하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